

2022 지구촌 교회

# 가정에 배순서지



**VOL.15**  
2022 11-12

# 유혹을 이긴 요셉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복음성가

지 182장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39:7-20

- 07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 08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 09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 10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 11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 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 12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 13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 14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 15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 16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 17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 18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 19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 20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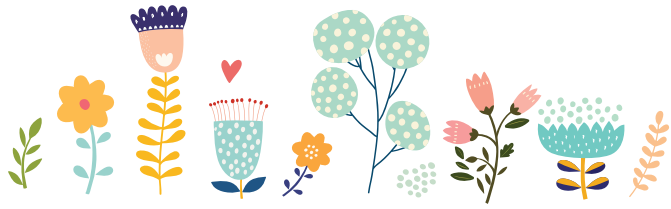
1.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것을 유능하게 관리감독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그런 요셉을 좋아했고 자기와 동침하자고 유혹했습니다. 다윗은 보디발의 충성스러운 종이었으며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없었기에 계속되는 그녀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어느 날 아무도 없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다시 요셉의 옷을 붙잡고 유혹하자 요셉은 옷을 벗어 놓고 도망쳤습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장소를 떠나는 것입니다.
2. 요셉은 죄의 유혹을 이겼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거짓말로 요셉을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요셉이 죄를 지으려고 했고 그녀가 위기를 모면한 것으로 이야기는 바뀌었습니다. 보디발은 분노했고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때로 억울한 누명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건 전체를 알고 계십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고 거룩을 유지하려면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요셉이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과 보디발과 보디발 아내의 생각을 표현해 보세요.

# 감옥에서도 형통한 요셉



##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 복음성가

지 28장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39:21-40:8

- 21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라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 22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제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 23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 01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굶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 02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굶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 03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 04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 05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굶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 06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 07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 08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1. 요셉이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그곳에서도 형통케 하였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요셉은 감옥에 갇힐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그랬고 감옥에서도 요셉은 인정받았고 사랑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의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2. 요셉이 관리하는 감옥에 왕의 고위급 관리 두 사람이 갇혔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날 이상한 꿈을 꾸고 근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때 요셉은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해석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에 자신에게 꿈을 말해 보라고 했습니다. 감옥에 있었지만 요셉의 지경은 이제 정치 지도자들과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가장 비참하고 힘든 자리도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불평하지 않고 묵묵하게 인정받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셉에게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



##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 복음성가

지 317장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 09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 10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 11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 12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 13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 14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 15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 나이다
- 16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 17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 18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광주리는 사흘이라
- 19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 20 제삼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 나라
- 21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 22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 23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1. 구약에서 꿈은 하나님의 중요한 계시 수단으로 등장하곤 합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신세였지만, 함께 갇혀 있던 애굽의 고위 관리들의 꿈을 풀이해 줌으로써, 자신의 처지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특별히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가 사면되어 복직될 것이라 꿈을 풀이해 주면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14절) 하지만 그의 이러한 기대는 이내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요셉의 해몽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었지만, 그가 요셉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사람을 향한 기대는 언제든 지 실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요셉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뿐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2. 요셉은 그 후로도 2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마도 그의 기대와 소망은 점점 실망을 넘어 절망으로 바뀌어 갔을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절망으로 가득한 기다림의 시간에도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어린 시절 꾸었던 요셉의 꿈도, 술 맡은 관원장의 꿈도, 또 장차 바로가 꾸게 될 꿈도 모두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들이었습니다. 인생을 살다보면 누구나 좌절과 낙담이 가득한 기다림의 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 때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본문 속 요셉과 같이 나도 고통스런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고 있지 않나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 바로 의 꿈



##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 복음성가

지 357장  
주님의 시간에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1-13

- 01 만 이 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꾀즉 자기가 나일 강 가에 서 있는데
- 02 보니 아름답고 살진 일곱 암소가 강 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 03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 강 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 가에 서 있더니
- 04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  
었다가
- 05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 06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 07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깽깽  
꿈이라
- 08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  
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 09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  
다
- 10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굶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  
을 때에
- 11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꾀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 12 그 곳에 친위대장의 종 된 히브리 청년이 나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  
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 13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1. 요셉의 도움으로 다시 바로 왕 가까이 가게 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2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여전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요셉은 자포자기의 심정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바로 왕이 심상치 않은 꿈을 두 번이나 꾸고 나서 명확히 해몽할 사람을 찾았던 것입니다. 많은 점술가와 현인들이 꿈을 해석해주어도 바로의 마음이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떠올리고, 바로 왕에게 요셉을 추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극적인 반전이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요셉이 그러했듯이 고통 속에 울고 있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2. 점술가들과 현인들은 꿈 해석에 있어서 나름의 경험과 식견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럴듯한 해석, 듣기 좋은 말을 들었다면 바로 왕 역시 쉽게 수긍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요셉이 감옥 밖으로 나와 바로 앞에 서게 될 일도 없고, 후에 총리가 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기에 점술가들이 감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요셉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손길과 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과 탁월한 지혜가 함께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지금 당장이 해결되지 않았어도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해결되어 하나님의 섭리라고 인정할 수 밖에 없던 일이 있었나요?.

# 백부장의 믿음



##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 복음성가

지 463장  
시작됐네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1-10

- 01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 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 02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 03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 04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다
- 05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 06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 07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낮게 하소서
- 08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 09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 10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1.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백부장을 잘 알던 장로들은 백부장의 종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일제히 예수님 앞에서 백부장을 칭찬했습니다. 원래 백부장은 로마의 군대에 소속된 사람이었지만 그는 유대인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 준 고마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은 사랑의 사람,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2. 예수님은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기 위해 직접 찾아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오직 말씀으로 종을 고쳐주시길 간구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명령으로 종이 병에서 치료될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종은 치료되었습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기적을 일으킵니다.



###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내가 백부장과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해야 할 나의 친구, 이웃이 있나요? 예수님께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 청년아 일어나라



## 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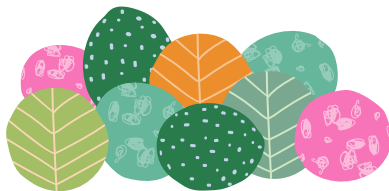
## 복음성가

지 78장  
내 눈 주의 영광을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11-17

- 11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 12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 13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 14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멘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 15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 16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 17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1. 예수님께서 나인이란 성에 가셨을 때 큰 슬픔에 빠진 장례의 행렬을 보셨습니다. 과부로 지내며 독자만 키우던 한 어머니의 아들의 장례였습니다. 당시 과부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고 독자는 유일한 그녀의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며 울지 말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2. 예수님은 장례의 행렬을 멈추시고 관에 손을 대시며 죽어있는 청년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목소리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창조주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관에서 나와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며 사람들에게 경외심을 일으켰기에 순식간에 예수님의 소문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상식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예수님께서 개입하실 때 기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빼고 상식으로 이해되는 부분만 받아들일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은 예수님의 기적을 믿나요?

# 당신입니까?



##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 복음성가

지 185장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18-30

- 18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 19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  
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 20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쭙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  
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 21 마침 그 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 22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  
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  
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  
라
- 23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 24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  
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 25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 26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  
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 27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 28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  
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 29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  
님을 의롭다 하되
- 30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그들 자신을 위  
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1. 헤롯에게 체포되어 감옥에 갇혀 있던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 소식에 대해 듣게 됩니다.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지만, 요한은 감옥에 갇혀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그는 그의 제자 둘을 예수님께 보내어,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맞는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질병이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현장을 보고 들은 대로 요한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사야 61장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는 감격적인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 삶의 형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2.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가자, 예수님은 세 번에 걸쳐 “광야에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시며 답을 주십니다. 무리들이 광야에 나간 이유는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의 사명을 감당했던 침례 요한은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보냄 받은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가 요한보다 더 위대하다고 덧붙이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나를 힘들게 하는 삶의 문제나 답답함 때문에 믿음이 흔들렸던 경험이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마지막 페이지'로 넘기셔서 가족을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



찬송가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복음성가

지 343장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14

- 01 그 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 02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 03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 04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 05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 06 거기 있을 그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 07 첫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눕혔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 08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 09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 지라
- 10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 11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 12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 13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 14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1.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은 유대인을 넘어서 온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세계사의 한 등장인물과 연결시킵니다. 세계의 중심이 로마라고 여겼던 시대에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는 온 세계를 다스리는 왕, 세상의 구주로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구주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예수님이 세계사의 한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의 등장을 기뻐하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성탄절이 온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복된 시간으로 가득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2.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으로 유대인들은 호적 조사를 위해 각기 고향으로 갔고, 이에 요셉과 마리아 역시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아기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주신다는 천사의 예언(눅 1:32-33)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왕, 온 땅의 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분이 누추한 여관에조차 머물지 못하고, 마굿간의 구유에 누이신다는 것은 참으로 신비한 역설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이 세상 왕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로 향하시는 평화의 왕,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온전케 하시는 참된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왕 되신 삶을 살고 계십니까?



###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찬양과 영광이 가득한 성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 가정 예배가 국가에 끼치는 영향



이 세상의 정치가들은 그리스도인의 헌신과 국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부와 국가에 끼치는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강한 나라의 필수 요소는 건전한 국민입니다. 영토와 비옥한 땅과 풍부한 자원, 막강한 군대 그리고 건전한 법의 구축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건전한 시민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기본 구성 단위인 각 가정과 개인이 올바른 자질을 갖추어 나갈 때 국가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바른 원칙과 좋은 습관을 갖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종교이며 그리스도인의 가정 예배는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은 자녀를 지도할 수 있는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교육기관입니다. 소위 개혁을 부르짖는 많은 파괴주의자들은 가정을 주요 공격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가정을 파괴하려는 사람들은 노동자들의 부당한 행위와 여성의 권리와 사회의 재구성을 요구하면서 끊임없이 가정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결혼을 폐기시키려고 합니다. 이혼을 부추기고 아이들의 최상위 보호자인 부모를 추방하고 청소년들에게는 잘못된 생각을 강제로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은 건전한 시민을 양성하는 학교입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는 가정은 정해진 시간에 한자리에 모이게 하기에 밤중에 쓸데없이 나돌아 다니는 것을 방지하고 부지런하고 사려 깊고 사랑이 많으며 부모에게 복종하도록 인도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건전한 시민이 될 수 없습니다.

[창18:19]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와 그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가정 교육은 가족에게 명하신 의무입니다. 가정은 최초의 정부이기도 합니다. 부모는 올바른 가정을 다스리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게 해주는 가정 예배는 공공의 안전과 평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위협하는 대중의 악은 대개 반항심에서 비롯되는데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데서 싹틔웁니다. 가정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아이들은 무법자가 되고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경찰은 가정에서 가장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가장의 권위가 약화되면 불법이 성행하게 될 것입니다. 사회질서는 정부가 강력한 힘을 더하거나 법의 처벌 수위를 높인다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권위에 순종하는 습관을 길러줄 때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가정예배 때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가져다 줍니다. 어려운 중에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얻게 만들어줍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자기 의무로 여깁니다. 성경은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딤후2:1-2]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국가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가족과 함께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어떤 심오한 방법이 아니라 온 국민이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67:5-7] 하나님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니

가정예배는 복의 근원입니다(저자: 제임스 W. 알렉산더 미션월드)의 내용을 요약하여 가정예배의 축복을 연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most of the page width.

A few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located at the bottom right of the page.





## 가정예배 이렇게 드리세요

- 1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보세요.  
가정의 상황에 맞게 예배의 길이와 횟수는 조정하시면 됩니다.
- 2 예배의 형식과 방법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자유롭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부모님은 사회자 역할을 해주시고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 3 말씀을 나눌 때 메시지가 자칫 자녀를 혼시하는 수단이 되지 않게 해 주세요.  
오히려 하브루타, 축복기도, 기도제목나눔 등을 통해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 4 찬양시간을 통해 자녀들이 찬송가를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복음성가와 어린이 찬양도 함께 불러보세요. 순서지에 제시된 찬양보다 더 많은 찬양을 불러도 좋습니다.  
지구촌교회 GMC유튜브 채널에 다양한 찬양이 있습니다
- 5 가정예배는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습관입니다.  
신앙생활이 익숙하지 않아도 누구나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아래의 QR코드를 통해  
가정예배 드리는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축복기도 · 중보기도

아내를 위해  
가장의 축복기도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주님!  
사랑하는 아내를 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가정을 위해 수고하는 아내의 삶에 기쁨을 주시고,  
매일의 일상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현숙한 여인이 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쁨을 누리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부의 축복기도  
(손을 잡고 눈을  
바라보며)

남편이 아내에게 :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가장 소중한 기회입니다.  
내 생명처럼 당신을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가장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당신을 신뢰하고 응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를 위한  
가장의 축복기도

사랑하는 자녀이름야 자녀이름의 영혼이 잘됨 같이 자녀이름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아빠, 엄마)가 간구하노라” (요한삼서 1장 2절)



자녀이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이름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이름이 또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훈탁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뜻을 행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자녀이름의 믿음을 통해 세상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이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모님을 위한  
자녀의 기도

사랑의 주님!  
이 가정에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을 위해 희생하시는 부모님께 은혜주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  
소서.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걱정과 염려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부모님의 마음에는 주님이 주  
시는 평안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신을 위한 기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은 내 인생의 인도자이십니다.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에도 마음이 무겁고 낙심될 때  
에도, 주님께 길을 물을 수 있는 내가 되도록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 삶에 기쁜  
일과 좋은 것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 안아주며 사랑 표현하기

3천 중보 용사 한맘 기도 | 각 가정에서 회개, 레위, 낫시, 미션, 라파의 기도 제목으로 중보해주시기 바랍니다.

